

# 한 사진가가 쫓은 아시아 모계 사회

노순동 / 시사저널 기자

**한** 사진 작가가 10년에 걸쳐 모계 사회를 취재한 뒤 전시회를 가졌다. 30대 중반의 백지순씨였다. 이 주제에 대한 반응은 성차가 뚜렷하다. 여성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남성들은 짐짓 원시적인 체계로 무시하거나 프리 섹스가 가능한 곳 아니냐며 희화화 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가 집중 탐사한 아시아의 모계 사회는 중국 모쑤족과 인도네시아 마낭카바우족, 베트남 에데족, 인도 나야르 카스트족 등이다. 결혼하지 않는 사회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은 중국 모쑤족이다.

결혼없이 어떻게 가족 관계가 유지될까. 남성은 아이를 낳지만 그 남성의 생활 공간은 원래 가족이다. 남성은 자신의 친정에서 외삼촌으로서 조카의 자녀를 돌본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는? 당연히 아내의 형제 자매가 보살핀다. 남성은 외삼촌으로서의 역할을 잘해내야하며 이는 부계 사회에서 여성이 숙모나 형수의 역할을 잘 하도록 요구받는 것과 같다.

근대적 의미의 결혼 개념이 없으니 한 여성이 아버지가 다른 자녀를 낳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차피 자녀는 한 어머니와 결속되어 있고, 그 자녀의 부양은 전체 가족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간혹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친정어 아닌 자신의 자녀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남성이 벌어들인 재

화를 어느쪽에 주어야 하는지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결혼을 하는 경우, 모계 사회는 신랑이 신부의 가계에 편입된다. 베트남 에데족이 그 예다. 신부측은 돈을 지불하고, 신랑을 사온다.

그러나 모계 사회의 모권은, 부계 사회의 부권과 확실히 달랐다. 백씨는 불완전한 권력이라기보다는 공존의 지혜로 해석하고 싶어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적인 가족 모델이 아니냐는 것이다.

모권이 부권과 다르다는 백씨의 인식은 과도한 일반화가 아니다. 일찍이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모계 사회가 평화롭다는 것을 허로 적시했다. 여성을 혹독하게 지배하는 가부장제는 있지만, 그 반대 양상의 가모장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그 현상을 여성의 본성 탓으로 신비화하지 않았다. 가부장제와 비슷한 가모장제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남성들이 무기와 전투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남성들을 격하시키고, 착취할 수단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남성성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현재 모계 사회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남성을 지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족 제도란 사람이 행복하자고 만든 것일 뿐이라는 상대성을 확인하고 싶어서일 터이니. **PPFK**